

목표달리다

군산시, 오는 9월까지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

군산시가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특보 발령상황을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방문 건강관리사, 읍면동 사회복지업무담당자 등을 재난 도우미로 지정해 폭염에 대비한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냉방시설을 갖춘 관내 경로당과 27개 읍면동 복지회관 등 41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어르신들의 쉼터로 운영할 방침이며, 노인돌봄 기본생활관리사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주2회 이상 안부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농사일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 발령상황 및 무더위 시간대(낮2시~오후5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 여성 강력범죄 예방 귀갓길 40여 곳 순찰활동 강화

군산경찰서 가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과 수력산·사패산 살인사건과 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군산경찰은 강력팀 형사들을 중심으로 여성안심구역과 여성안심 귀갓길 40여 곳에 대한 가시적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형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위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여성범죄 수사와 여성 피해자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봉 군산경찰서장은 "경찰이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친절·정성·배려로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 중앙지구대 원룸주변 순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 상대 범죄를 예방하는 동시에 대국민 치안민중도 향상을 위해 배산 등산로 및 송학동 하와이빌리지 원룸 주변 후미진 골목길 등을 대상으로 방범진단 및 집중순찰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요소를 제거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범죄취약요소를 개선하여 면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배산등산로 입구 및 등산구간에 위치한 가로등·CCTV 등 방범시설에 대한 점검과 등산로 순찰로 여성안전을 확보하고 송학동에 소재한 하와이빌리지 부근 골목길이 후미져 여성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주민의 여론에 따라 매일 야간시간대 도보순찰을 실시하여 가시적 순찰활동을 펼치고 더불어 현장에서 취약민원에 대한 주민 애로사항 청취도 병행했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새마을회, 생활쓰레기 수거

익산새마을회(회장 조홍찬)는 15일 배산공원 일대에서 활기찬 지역 맑고 건강한 익산을 조성하기 위해 깨끗한 익산 만들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새마을회는 지난 9월부터 매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책로 등 곳곳에 버려진 빈병, 캔 등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는 등 다시 찾고 싶은 익산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조홍찬 새마을회장은 "산림과 공지로 곳곳에 앞장서는 새마을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매우 기쁘다"며 "오늘의 구슬땀이 익산시가 쾌적한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선유도 휴양시설에 곰팡이가 핀 속소(왼쪽)·비닷물이 차오른 지하공간(오른쪽)



선유도 휴양시설 관리상태 엉망

위탁자 안전점검 유지 보수 필요 민원 제기에도 군산시 8개월째 묵묵부답

군산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선유도 휴양시설이 관광객의 안전을 무시한 채 수 십년동안 엉터리 운영을 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군산시 선유도휴양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휴양시설로 군산시 소유이며 입찰을 통해 위탁운영 되고 있다.

이 시설에 대해 김모(41)씨는 지난해 9월 공개입찰을 거쳐 3년 운영 후 2년 연장 조건으로 연간 3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기로 군산시와 계약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휴양소를 답사 후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된 건물임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군산시에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포함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뤘으며, 최근 민원인에게 돌아온 답은 "물이 차오르는

지하 공간은 세입자가 사용하면 된다"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지리한 해당 건물의 지하 1층은 바닷물이 계단까지 차올라 전기배전반이 물에 잠긴 상태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화장실은 배수가 되지 않아 오물이 흘러넘치고, 관광객과 수난구조대원 등이 묶는 숙박시설 곳곳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피어있으며 위층에서 새어 나온 물로 인해 1층 천정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는 입찰진행 과정에서 해당건물의 부실 및 노후 상태를 공시하지 않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시설물은 92년 건축 후 24년이 지나도록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당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장비가 설치되지 않는 등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와 같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휴양소의 문제점은 지난 수년간 대두되어 왔으나 군산시는 아무런 대책마련도 없이 위탁운영을 맡겨 비난을 사고 있다.

김씨는 "해수욕장 개장을 코앞에 두고 관광객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손해가 막대하다"면서 "어떻게 이러한 시설물을 입찰에 내놓을 수 있으며 이런 공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지하공간은 임시방편으로 배수펌프를 설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개보수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정헌을 익산시장, 지역 대표기업CEO 와 간담회

20여명 초청 주요 지원 시책 설명·애로사항 청취

정헌을 익산시장은 15일 익산지역 업종별 대표기업 CEO 및 임원 20여명을 초청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익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시책으로 기업인과의 정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에 동지를 틀고 묵묵히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온 익산 입주 기업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정보를 시와 기업인들이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시는 기업유치와 주요 기업지원 시책 설명,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헌을 시장은 이 자리에서 "허러분

들이야말로 익산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 오신 든든한 버팀목이다. 앞으로 더 번창하기 위한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인들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필요한 법령개정, 제도개선 등 애로사항을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신속한 검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꾸준한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고" 입을 모았다.

/익산=정왕원기자

원광대 재학생 6명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 봉사단 선발

원광대학교 재학생 6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KUCSS)가 공동 주관하는 2016년 3기 월드프렌즈 청년 중기 봉사단에 선발됐다.

이날 시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글로벌 청년프로젝트' 일환으로 우수한 현장형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장기 봉사단과 단기 봉사단 사이의 연계 역할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기 봉사단이 몽골을 비롯한 3개국에 파견됐으며,

2015년 2기 봉사단은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태국 등 5개국에 파견됐다.

이번 3기 봉사단은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팀당 6명씩 총 20개 팀이 선발됐으며,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지에 교육과 직무교육, 안전교육 등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에 파견돼 교육봉사 및 노력봉사, 특별활동, 현장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익산=정왕원기자

익산시, 태양광발전시설 등 난개발 방지 운영지침 제정 8월부터 시행

익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 등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 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해 6월15일자로 발령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농경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되면서 농촌미관 저해를 가져오

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주요도로에서 100m, 10호이상 주거지에서 200m, 10호미만 주거지에서 100m, 공공시설 경계로부터 200m, 문화회계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이와 더불어 폐차장 고물상 야적장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훼손설치, 조경수 식재, 녹지공간을 확

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익산시의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으로 익산시가 세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있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 시행으로 난개발 예방 및 원활한 개발행위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군산시 소룡동에 홍물로 남아있던 건물과 공유지가 아외수영장으로 탈바꿈했다.(군산 아외수영장 조감도)

군산 소룡동 아외수영장 7월 8일 개장

군산시 소룡동에 홍물로 남아있던 건물과 공유지가 아외수영장으로 탈바꿈했다.

군산시는 소룡동 아외수영장 조성공사가 완료돼 시운전과 개장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7일 오전 10시 개장식을 시작으로 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어린이들의 물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군산해수청에서 내한 수제선 호안장비공사로 조성예정인 부지를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

소룡동 아외수영장은 사업 시행 전 모래바탕, 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환경관련 문제와 인근에 슬레이트 건물로 홍물로 남아있어 사업부지 위치로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고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는 등 아외수영장 조성을 통해 주변 환경 개선에도 일조하게 됐다.

소룡동 아외수영장 조성에는 총 5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부지 면적은 약 1만3000㎡이다. 주요시설은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과 놀이시설인 슬라이드 2개사, 종합놀이시설, 분수대, 카페 테라스 등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했다. 시는 개장 전 주요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시행하고, 주요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3단계 사업으로 수변공간에 2만6000㎡ 규모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7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휴게, 운동,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단계 사업으로 수변공간에 2만6000㎡ 규모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7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휴게, 운동,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단계 사업으로 수변공간에 2만6000㎡ 규모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7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휴게, 운동,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단계 사업으로 수변공간에 2만6000㎡ 규모로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8년까지 약 70여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휴게, 운동, 휴식공간 등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동료선원 살해한 베트남인 검거

해상에서 조업 중인 선박에서 선원 간 다툼이 결국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경 부안군 위도면 상왕동도 남서쪽 51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20톤급 어선(근해연승, 군산선적, 승선원 7명) 선원 A씨(25살·베트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사건당일 조업 중에 동료 동료선원 B씨(39살·베트남)와 싸움도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진 B씨와 평소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조업 중에 서로 시비가 발생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기자

착한가게, 군산시청에 1,000만원 상당 성품 전

때 이른 더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산지역 착한가게가 저소득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이웃 사랑 활동에 동참했다.

착한가게 후원 업체들은 지난 15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휴식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1000만원 상당의 선종기 및 이불세트 등을 기탁했다.

군산지역 착한가게는 지난해 여름나기 성품(1,000만원 상당) 전달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인 후원을 보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기탁된 성품은 휴식기 폭염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저소득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혜년보다 일찍 여름이 시작될 가운데 무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정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착한가게 나눔 후원자분들에 감사드립니다"며 "착한가게를 시작으로 '여름나기 나눔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지역 내 착한가게는 식당, 중소기업, 어린이집, 병원, 학원 등 85개소로 매일 수익의 일정금액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